

대한양계협회 소식

'84 본회 정부지원사업 확정

- 계란G.P 센터, 도계장시설근대화,
계육운반차량 지원자금 용자에정 -

본회의 84년도 정부지원사업 요청에 따라 정부는 1984년도 축산진흥사업계획 및 실시요령(본지p.42참조)에 의거 양계관련 보조사업,용자사업, 간접지원사업을 확정했다.

관련사업의 지원을 원하는 양계단지나 도계장 등 양계관련업체에서는 본회나 각 시·도에 문의하여 용자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

84년도 양계관련 정부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가. 보조지원사업

1. 닭경제능력검정 사업

○ 지원내용: 닭경제능력검정을 위한 검정소 시설비 및 운영비의 일부보조.

○ 재원 및 지원액: 축산진흥기금보조 1억 7천만원.

○ 사업주체: 대한양계협회.

2. 양계산업 기반조사

○ 목적: 양계산업의 기초자료조사 및 자율적생산조절 유도, 양계산업의 안정화도모 및 생산조절기능의 제도화 모색.

○ 사업내용: 부화장실태 및 초생추 출하상황 조사.

○ 재원 및 지원액: 축산진흥기금 보조 2억 9천만원.

○ 사업주체: 대한양계협회.

○ 조사사항: 허가 및 무허가부화장 실태, 부화기종별 보유수, 월별·용도별 입란수 및 출하수수, 닭 질병발생 상황, 유통동향.

3. 혈청학적 역학조사 사업(혈청검사 사업)

○ 목적: 질병의 혈청학적 진단으로 질병발생 분포조사, 혈청학적 질병진단 방법의 확립 국내발병통보가 없는 질병의 유무조사.

○ 실시기간: 84. 1월~12월.

○ 사업주체: (주최) 축협중앙회, (주관) 가축위생연구소.

○ 사업비: 축산진흥기금 1천 5백만원.

○ 사업추진: 축협중앙회 기술지원단에 재요구입 지원.

4. 축산물 소비 및 유통구조 개선

○ 목적: 쇠고기 편중 소비구조의 개선, 국내 축산물 자급도 제고 및 국민영양 급식향상, 축산진흥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 방침: 쇠고기 선호의식 개선, 국내육류 자급도 제고로 육류수입 억제, 축산물 유통 개선을 위한 시험조사 지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육류소비 구조개선 추진.

○ 실시기간: 84. 1. 1~12. 31.

○ 사업주관: 축협중앙회

○ 재원 및 소요예산: 축산진흥기금 4억원.

나. 융자지원사업

1. 계란 G.P 센타

○ 목적: 계란의 등급 및 포장화를 통해 상품성 제고 및 유통질서확립, 위생적인 계란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 저장기능으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 재원 및 지원금(융자): 축산진흥기금 5억원 (1개소).

○ 용도: 계란 G.P 센타 시설비에 한해 소요자금 100% 융자.

○ 융자 대상: 업체 별도 선정.

○ 융자 조건: 연리10%, 3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

2. 육가공장 시설지원

○ 목적: 육가공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기존업체의 노후시설 대체, 신축이전 및 신규 시설비 지원.

○ 재원 및 지원금(융자): 축산진흥기금 10억원 (2개소)

○ 용도 및 융자한도: 육가공장 시설 및 기계설치비에 한해 소요자금의 70%이내.

○ 융자대상선정: 시설지원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해당시도지사의 의견서를 첨부 축협중앙회장에 신청, 축협중앙회장이 선정하여 지원하고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융자조건: 년 10%,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3. 도축장(도계장) 시설근대화 사업

○ 목적: 시설근대화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하여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 처리 능력보강으로 육류공급의 원활과 육류가격 하락방지를 위한 수매비축사업용으로 활용.

○ 추진방향: 도계장 신규허가시 병장, 병동실을 설치토록 적극유도, 도계장에 대한 도계육 운반차량(병장 또는 병동차량) 확보.

○ 지원계획

도축장(도계장)시설근대화: 9억원 (3개소)

위생계육운반차량: 1억 7천만원 (10대)

○ 지원대상자: 1일 1만수이상 처리할 수 있는 대량도살방법 (Line and Shackle System)의 기계시설로 서울 등 대도시에 계육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도계장, 시설근대화를 필요로 하는 기존 도계장, 위생계육운반차량을 필요로 하는 도계장.

○ 대상자 선정: 시도지사는도계장(도축장) 시설근대화 지원대상자를 84.2.28 한 축협중앙회장에게 추천하고 축협중앙회장은 대상자를 확정, 결과를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위생계육운반차량 지원대상자를 84.2.28 한 농수산부장관에게 추천 (84년 6월말 현재 지원자 중 사업추진 불가능한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다)

○ 융자한도: 소요자금의 70% 이내.

○ 융자조건: 년 10%, 3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

○ 융자방법: 축협 여신규정에 의함.

다. 간접지원 사업

1. 닭고기 수매비축 사업

○ 예산 및 수량: 3억 1천 3백 5십만원. (500 M/T, 5십만수)

○ 수매시기: 경영비이하 수준으로 하락시.

○ 수매기관: 축협중앙회 또는 농수산부장

관이 지정하는 협회 및 단체.

○ 수매방법: 축협중앙회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실시(협회 및 단체도 이에 준함)

기타 식생활개선사업지원, 축산물 유통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지원 등은 생략.

충남지부 사무실 이전

충남지부(지부장 이 건남)는 업무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12월 5일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전장소: 대전시 중구 용문동 242-21
전 화: 523-7784

양계 기반조사요원 보고회의 개최

- 통계자료 외에 생산조절 유도기능 -

본회는 지난 12월 16일 본회의회의실에서 이 상윤회장, 신 홍중부회장 및 농수산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계 기반조사요원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본회 임 덕성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는데, 개최에 이어 종합적인 보고에서는 자율적인 생산조절 유도로 양계산업안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양계산업 기반조사사업은 이 보고회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되어 그야말로 양계산업안정화에 기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 필요사업으로서 본회는 이 자료를 이미 월간양계지 및 사료관측 엽서에 게재, 홍보하여 생산조절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사요원으로 하여금 부화장에 대하여 정부시책홍보 및 업계정보제공, 부화 및 종계업자 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현황 및 전망검토, 생산조절협의 등 기반조사사업자료를 통계자료로서 뿐

만 아니라 생산조절유도에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요원이 집약 보고한 업계요망사항은 다음과 같다.

● 무허가 부화장의 성행으로 인한 허가부화장의 피해가 막심하다.

● 오리 부화장에서 병아리부화, 무등록 종계장의 난립, 닭고기 값의 연동제실시요망, 종계등록에 대해 강력한 행정기관의 단속이 요구된다.

● 유통구조의 문제점해결 및 충남지역에서의 종계장등록규정 완화조치 요망.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를 내년에도 계속해 줄 것을 요망한다.

한편 농수산부 담당관은 제반 문제점 및 요망사항검토에서 무허가 부화장은 조만간 강력한 단속을 단행할 것이며, GPS 종계장은 미등록 종계장에 종계판매를 금지하여 종계유통질서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이 기반조사사업이 계속되어 내년에는 보다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부화장, 조사요원 및 행정당국은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해야 될 것으로 결론지었다.

육계 생산자 월례회 개최

- 83년도 업계분석 및 84년도 전망검토 -

12월 육계생산자 월례회의가 지난 12월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83년도 육계업계 현황분석 및 '84년도 업계 전망검토에 대해 주로 토의가 있었다.

'83년도 브로일러업계는 1~2월에는 호황이었으나 3월이후 점차 하락하였고, 7~8월에는 여름철 성수기임에도 수요증가를 기대한 양계농

가의 사육수수 과다로 가격은 약세를 나타냈으며, 9~10월에도 추석물량을 노린 사육수수급 증 및 농가채화현상, 생계유통단속 및 도계육 소비부진 등으로 가격은 하락세가 지속되어 급기야 10월에는 수매까지 실시되었다.

이 수매여파로 가격은 많은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11월 사료가격인상으로 육계값은 생산비 이하에서 허덕였다. 더우기 경기도 일원의 간이제사철거령에 따라 육계 생산자에게 '83년은 최악의 한해였다.

'84년도는 1~3월 연휴, 구정 및 봄철 행락철의 수요증가로 가격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사료값 인상설을 감안하면 참으로 '84년도에도 육계생산자에게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다.

이날 회의후 한해의 회고와 갑자년 새해를 다짐하는 뜻에서 간단한 회식이 있었다.

닭 인공수정 강습회

- 전국 종계장 수정사 15명수로 -



△ 본회는 수정율 향상과 종계능력향상을 위해 닭 인공수정 강습회를 개최하였다.

본회에서는 최근 종계사육형태가 케이지로 변함에 따라 인공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인공수정에 대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정율 향상과 종계의 능력향상을 기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9일까지 인공수정 강습회를 이론은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실습은 김포군 김포읍 소재 김포종고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회원종계장 수정사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이론강습회가 열려 김 순재박사 (전국대 축산대)의 종계 방역과 백철농장장 (고창양계)의 인공수정 성공사례 발표가 있었다.

이어서 이 재근박사(고려대 농대)의 「닭의 번식생리 및 인공수정」에 대한 강의를 가졌으며, 9일에는 김포종고 과학실험실에서 이 병호 사장(삼화약품)의 인공수정 이론과 함께 실습을 실시했다.

실습이 끝난 후 본회 회장을 대신해서 노영한국장(본회 편집국)이 수료증을 수여하였다.

수료증 수여식에 노국장은 「계속해서 인공수정 강습회를 가질 것이며, 앞으로 해외 진출의 길도 밝은 전망이다」라고 밝히고 많은 종계장 수정사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인공수정교육 이수자 명단)

김 용재(새한부화장), 양 국한(협동부화장), 김 종록(염광농장), 박 치원(하양부화장), 이상철(염광농장), 이 은성(소영농장), 배 창섭(기룡농원), 강 상신(제유농원), 유 형규(풍원농장), 김 태석(봉산농장), 정 병리(능곡농장), 박 용구(동부 부화장), 정 수근(남지 부화장), 주 봉호(중원농장),

12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별도의 제조직 구성, 계우회

적극 참여로 채란업계 발전전망 밝아 -

84년도 12월 채란분과위원회가 지난 15일 (목)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15명의 채란분과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축가들의 관심도가 높은



△ 12월 채란분과위원회

「'84 사료가격전망」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강사: 홍성사료 김 만태 생산차장), 84년도 사료생산량은 83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예정으로 옥수수안정가 폐지, 관세인상, 곡류가격인상 등으로 제반 요인이 상승할 예정이나 사료공장의 원가절감으로 그 폭을 좁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황 인옥전무는 협회주요업무보고에서 풍년축제, 브로일러 수매비축, 한국가금학회 창립, 닭 인공수정사 교육, 경제능력검정소 신축현황, 축산진흥기금, 내년 축산물 수요 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내년도 채란분과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 자세히 토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토의에서는 산란계 초생추 출하분석검토, 83년도 채란업 경기 및 84년도 전망분석, '84 채란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83년도 경기는 대체로 무난했다고 보고 84년도의 경우는 초반 계속 강세이나 하반기 약세를 우려해 입추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고 논했다.

84년도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학계, 연구계 등 광범위한 업계의 참여를 중용하고 수수에 관계없이 채란업자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해 자구책으로 참여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결의

하고, 연내로 분과위원회와는 별도의 친목을 위한 계모임(발기인: 분과위원장)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에 분과위원들은 대군업자 중심의 모임에 지역별 계우회가 함께 참여 한다면 84년 채란분과위원회는 어느때보다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데 뜻을 모았다.

분과위원회가 파한 후 83년을 정리하는 망년회로 간단한 회식을 가졌다.

제주도지부 감사패 받아

- 제주세무서로 부터 -



(강 태호 제주도지부장)

본회 제주도지부(지부장: 강 태호)는 지난 83년 11월 25일 제주세무서(서장: 이 제홍)로부터 세무행정에 적극 협조하고 신뢰세정 구현과 건전한 납세풍토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제 1차 이사회 개최예정

- 1월 25일(수), 신년인사회도 함께 -

본회는 금년도 제 1차 이사회를 오는 1월 25일(수) 오후 2시 부터 본회 지하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오는 2월초에 개최할 84년 본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 '83년 사업실적 및 수지예산집행 결산심의 △ '84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 총회개최에 관

한 건 △ 회원관리에 관한 건 △포상대상자 심의 △ 기타사항 등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어려운 시기에 지속적인 양계산업 안정화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중요한 회의가 될 이번 이사회는 모든 양계인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만큼 전 이사의 참석이 요망된다.

이사회가 파한 후 오후 6시 30분부터는 1984년도 양계인 신년인사회가 있을 예정이다. 본회는 지난해 1월 11일 코리아나호텔에서 83년 양계인 신년인사회를 개최 역대회장, 자문위원, 임원, 농수산부 관계관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회를 가진 바 있었다.

지부장회의 개최

본회 각도지부 지부장회의를 지난 1월 6일 오후 본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83 지부운영을 결산하고 '84 예산편성지침, '84 지부사업계획, 운영계획 등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본회 84년도 시무식

- 작년 세밑에는 종무식 가져 -



△ 본회 1984년도 시무식 광경

본회는 1월 4일 이 상윤회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회의실에서 84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서 이 상윤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지난 83년은 북괴의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소련의 KAL기 격추 만행사건, 대형금융사건 등 국내외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특히 우리 브로일업계는 10월에 사상 최저가격으로 폭락하는 등 불황의 연속이었다」고 회고하면서 그러한 상황속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간 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아직도 우리 양계업계는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인내와 슬기로서 이 난관을 극복하여 보람있는 84년도가 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2월 31일에는 본회 황 인옥전무 등 전직원이 참석, 간단한 다과를 마련한 가운데 종무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황 인옥전무는 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84년도에는 결실의 한해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신간 안내

肉鷄 飼育要論

〈브로일러 생산기술〉

오세정 著 · 선진문화사 刊

◇ 구독문의 ◇

(778) 8103~4 대한양계협회 지도조사부